

금호타이어, 또다시 미국 속으로...

임금·단체협약 부결 ... 대규모 정리해고에 법정관리 가능성 농후

2010년 임금단체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계 10위 타이어 상표이자 연매출 2조6000억원의 금호타이어가 또 다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됐다.

4월 7-8일 시행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물론 법정관리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적 조합원 3561명 가운데 3460명(97.2%)이 투표에 참가해 임금안에 대해 1514명(43.76%) 찬성, 1946명(56.24%) 반대, 단체협약안에 대해 1485명(42.92%) 찬성, 1975명(57.08%) 반대 등으로 나타나 투표인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권단은 1월6일 워크아웃을 개시한 이후 국내 공장과 해외법인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노사합의서 등을 토대로 자구계획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채권단에서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회사의 법정관리 가능성도 한층 커지게 됐다.

4월8일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채권금리 인하, 만기연장, 출자전환, 감자 등이 포함된 채무재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부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채권단의 긴급자금 투입도 불투명해져 14일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지급하기로 했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사 합의안 부결로 유보됐던 1199명(도급화 1006명 포함)에 대한 정리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 집행부는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모든 협상력을 집중했지만, 해고 유보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노사협상 전반에 걸쳐 노조 내부 강경파와 현 집행부의 갈등이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데서 드러났듯이 앞으로 노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9>